

황금장갑



호랑이 몇개나 낚까

총 55개 보유로 8개구단 중 2위... 올 시즌 이용규 등 3명 초대

11일 2010 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할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37명의 후보가 10개의 골든글러브를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된다. 지난해까지 제작된 골든글러브는 총 279개.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은 선수는 모두 126명이다. 한대화 한화 감독과 삼성 양준혁은 8번이나 황금장갑을 가져가며 역대 최다 수상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감독은 해태시절인 86년부터 91년까지 6년 연속 수상에 섰다. 한 감독은 LG로 이적한 1993년과 다음해인 1994년에도 수상자가 됐다. 올 시즌 후보 중에는 SK 박경완(포수), 두산 김동주·롯데 홍성흔(이상 지명타자)이 개인 통산 5번째 수상에 도전한다. 또 홍성흔은 외야수 부문 김현수(두산)와 함께 3년 연속 수상을 노리고 있다. 역대 최다 득표율은 2002년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를 가져간 마해영(삼성)으로 유효표 272표 중 단 2표를 제외한 270표를 씩쓸며 99.26%의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산 이종욱은 2007년 외야수 부문에서 350표를 득표하며 최다 득표수 수상자가 됐다. 2001년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양준혁이 104표를 얻어 롯데 호세(102표)를 단 2표차로 누르고 수상자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전신 해태시절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단골 손님이었던 타이거즈는 총 55개의 골든글러브를 보유하고 있다. KIA는 1982년 차영화(2루수)·김준환(외야수)을 시작으로 1997년 이대진(투수)·홍현우(3루수)·이종범(유격수)·박재용(지명타자)까지 80·90년대 45개의 '황금장갑'을 씌웠다. 하지만 1998~2001년, 2004·2005·2007·2008년 단 한 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팀 자리를 삼성(57개)에게 내주었다. 한대화·김성환·선동열·이종범은 모두 6차례 수상으로 구단 통산 최다 수상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종범은 일단 해인 1993년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는 과력을 발휘했다. 유격수 부문에서 4차례 골든글러브를 가져간 이종범은 2002·2003년에는 외야수 부문 수상으로 내·외야를 동시에 석권했다. 5차례 수상자인 이순철도 내·외야를 집령한 선수 중 한 명이다. 2000년대 들어 5개의 골든글러브를 수확하는데 그쳤던 KIA는 지난해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황금시대' 재연에 성공했지만, 올 시즌에는 최희섭(1루수)·안치홍(2루수)·이용규(외야수) 세 명만이 후보로 초대받았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3시 MBC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란제리볼' 섹시패션

라스베이거스의 토마스 앤드 맥 스포츠 센터에서 개최된다.

미국 프로풋볼(NFL) 챔피언십인 슈퍼볼의 하프타임에 뜨겁게 달구는 '란제리볼'의 유니폼이 9일 공개됐다. 란제리볼은 슈퍼볼 중간 휴식 시간에 유명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여배우와 모델들이 속옷만 입은 채 7대 7로 벌이는 풋볼 경기로, 이번 시즌에는 2011년 2월 6일 /연합뉴스

프로야구 중계권료 200억?

관중 600만 흥행 '몸값' 올라... 지상파 등 4년계약 협상 중

관중 6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프로야구가 폭발적인 흥행 열기를 등에 업고 중계권 협상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마케팅 자회사인 KBOP는 현재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와 3사 산하 케이블 채널을 묶어 중계권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순풍을 타 중계권료는 올해보다 대폭 오를 것이라는 게 KBOP의 설명이다. 통

상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해마다 10% 정도 중계권료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인상폭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프로야구 경기의 시청률도 좋고 광고도 잘 붙는 등 콘텐츠 경쟁력이 우수한 덕분이다. KBOP는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TV 중계권료와 위성 DMB, IPTV 등 뉴미디어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까지 합하면 사상 처

음으로 200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4년간이다. 올해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의 중계권료는 108억원이었다. 매일 중계하는 케이블 채널의 중계권료가 60%를 넘고 지상파 중계권료는 40%에 못 미친다. KBOP 관계자는 9일 "논의가 잘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협상을 마칠 계획이다. 야구 인기가 높아 협상 시작부터 높은 금액을 불렀고 방송사도 제값을 내고 프로야구 중계권을 사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女복싱 챔프 우지혜 내일 6차방어전

프로 복싱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세계챔피언 우지혜(23, 우동구체육관)가 11일 6차 방어전에 나선다.

우지혜는 11일 낮 1시 충남 천안 남서울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미국의 제니퍼 바버를 상대로 IFBA 슈퍼페더급 6차 방어전(10라운드)을 치른다.

지난해 11월 룬다 루나(미국)를 관중승으로 물리치며 5차 방어전에 성공한 우지혜는 13개월 만에 링에 오르게 됐다. 우지혜는 프로에서 11승(1KO)1패를 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는 바버는 9승(1패) 가운데 4차례를 KO승으로 장식할 정도로 펀치가 강한 선수로 알려졌다.

이날 범아시아복싱협회(PABA) 챔피언 김택민(26)은 제임스 모코진타(인도네시아)를 상대로 1차 방어전(12라운드)을 갖는다.

김택민은 11승(7KO)3패를 작성하고 있고 모코진타는 10승2패를 올렸다. /연합뉴스

야구 전문기록원 양성 KBO·대한야구협 공동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가 2011년도 베이스볼 아카데미 전문기록원 양성과정을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제 1회 베이스볼 아카데미는 프로·아마의 공식기록원 양성고 사회인 야구 기록원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개설되며 내년 1월15일 서울대학교에서 개강해 4주간 토요일·일요일 각각 5시간씩 총 40시간

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 대상자에게는 '야구 규칙집' 및 '기록 가이드북'과 '2011 개정판 기록교본 해설집'이 교재로 제공되며, 수료자 전원에게는 등급별 인증 수료증이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KBO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야구회관 기록위원회 방문 접수(15·16일 불가) 하면 된다. 한편 KBO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록강습회는 2011년 2월 말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KBO 기록위원회(02-3460-4663)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천 AG 볼링·우슈 등 36개종목 확정 한국 메달밭 바둑·당구 탈락

4년 뒤 인천에서 열리는 하계아시안게임의 개최 종목이 최종 확정됐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9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협의를 거쳐 인천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볼링을 포함해 36개 정식종목을 공식 발표했다. 국내에서 세번째로 열리는 2014년 인천아

시안게임은 이에따라 28개 올림픽 종목에 볼링, 야구, 크리켓, 가라테, 카바디, 세팍타크로, 스쿼시, 우슈 등 8개 종목이 추가돼 최종 36개 종목이 됐다. 지난달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펼쳐진 42개 종목 중에서는 한국의 메달밭인 인라인롤러와 체스(바둑·장기 포함), 당구, 소프트볼, 댄스스포츠, 드래곤보트가 탈락했

다. OCA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종목 수를 광저우대회 42개에서 35개로 줄이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천조직위는 지난달 OCA 총회에 참석해 28개 올림픽 종목에 야구, 볼링, 카바디,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스쿼시, 우슈 등 7개를 추천했으나, OCA는 볼링과 소프트볼 대신 크리켓과 가라테를 추가할 것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8개를 딴 '효자종목' 볼링을 포함시킬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크리켓, 가라테와 함께 볼링이 추가돼 정식종목이 36개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아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갤러리아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 (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Salvatore Ferragamo BOSS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AIGNER D&G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 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휘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 장점

- 절전형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
- 친환경 냉매
- 하이드록리트체택

■ 설치장소



바닥 난방, 급탕이 필요한 병원, 기숙사,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진영실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28-10번지
TEL. 062-953-2371 · 061-727-2371 · 019-624-2371